

## 2014 년도 미국 명문대학 정규 입학 결과 분석 2

### (하바드 대학교)

지난 10 년간의 하바드 대학 입학 결과를 분석 하면 전체 지원자수, 입학률, 그리고 조기지원과 정규지원에 따른 입학률의 변화가 매우 명확해지고 있다. 2005 년 총 22,796 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2,102 명의 학생들이 입학 허가되어 입학률이 9.22%를 나타냈다. 반면 2014 년에는 총 34,295 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2,023 명이 입학 허가 되어 5.9%의 입학률을 보여주었다. 10 년전과 비교할때 총 11,500 명정도의 지원자가 증가한 수치이다. 2005 년도만 해도 미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대기지 명단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입학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기침체, 우수학생 리쿠르트, 재정보조 확대로 인해 하바드에 입학허가된 학생들의 등록률이 상승하였다. 이로인해 하바드가 입학허가 학생수를 100 명정도를 축소시켰고, 가능하면 대기자 명단에서 대학이 필요한 적정 학생수를 선택하여 교육시키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효율성을 얻지 못하고 매년 대학이 예상한 최종등록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보이지 않게 입학 정책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하바드는 모든 학생들에게 앞으로 30 년 이상 전액 장학금으로 재정 보조 혜택을 줄수 있는 재정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재정력을 기반으로 저소득 계층중 우수한 학업능력과 리더쉽이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입학 기회를 주고 있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도 전체 입학 허가된 학생들중 45%이상의 학생들이 저소득 계층 우수한 학생들이었다.

오바마 정권이후 많은 대학들이 다양성(Diversity)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입학에 반영하고 있다. 하바드 역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입학허가를 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체 입학생들중 흑인이 11.9%, 라틴계 13%, 아시안 미국계 19.7%, 인디언계 1.9%, 외국인 10.5%, 이중국적 7.7%등으로 전체 학생들중 약 64.7%정도의 학생들이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칼리지보드와 ACT 기관에서 시험 신청전에 작성하는 다양한 질문지를 참조하여 학생들의 배경과 흥미를 파악 하고 있다는점에서, 두기관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도 필요하다.

남녀 성비율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1999 년 하바드와 레드 크래프트(Radcliffe College) 칼리지가 공식적으로 합병된 이래 하바드 칼리지라는 독립적인 이름이 명시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들 보다 더 많은 입학허가를 받다가 최근 3 년 동안에는 입학허가를 받은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을 초과하였다. 대학측에서 남녀비율을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는 남학생이 55%, 여학생이 45% 입학허가되어 사실상 대기자 명단에서 남학생들 보다 여학생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전공 선택의 유무: 올해 입학허가된 학생들중 7.9%만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했다. 다시 말하면 전공선택이 입학에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비록 하바드가 교양 학부 중심대학으로 대학 2 학년 2 학기때까지 전공을 선택하면 된다고 할지라도,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수들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기때문에 전공 선택이 비선택보다 유리하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다. 올해의 경우 남학생들이 엔지니어링, 응용 과학, 수학, 컴퓨터학등에 여학생들보다 많이 지원하여 더 많은 입학허가를 받았다. 물론 대학이 이과 분야를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도 포함되겠지만 학생들이 공대쪽분야에 지원을 많이하고있는 경향도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컴퓨터 전공분야를 예를들면 지난해 59 명, 올해는 90 명의 학생들이 입학 허가를 받았다.

하바드 입학 처장인 피츠시몬스 (Fitzsimmons)에 따르면 "올해는 우수한 업적을 많이 남길 다양한 학생들 부류와 미래 미국의 지도자감들을 많이 뽑았다"고한다. 입학 경쟁이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올해 조기지원에 4,692 명이 지원하여 992 명이 입학 허가 되어 합격률이 21.14%였다. 정규 지원의 경우 총 29,603 명이 지원하여 1031 명이 입학허가를 받아 3.48%의 저조한 합격률을 보였다. 둘을 비교해보면 조기지원의 입학률이 정규지원 입학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조기지원을 한다면 입학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Regular Decision				Early Decision		
	Admitted	Applied	Rate(%)	Admitted	Applied	Rate(%)
2005	1217	18583	6.55	885	4213	21.01
2006	1311	18885	6.94	813	3869	21.01
2007	1199	18947	6.33	859	4008	21.43
2008	1948	27462	7.09	0	0	0
2009	2131	29112	7.32	0	0	0
2010	2110	30489	6.92	0	0	0
2011	2158	34950	6.17	0	0	0
2012	1260	30057	4.19	772	4245	18.19
2013	1134	30167	3.76	895	4856	18.43
2014	1031	29603	3.48	992	4692	21.14

## (예일 대학교)

미국 대학중 가장 입학이 어려운 대학이 예일 대학이다. 왜 예일이 입학이 가장 까다로운 대학일까?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차별화된 입학 결정을 하는 대학인가? 예일은 시카고대, 코넬대, 존스홉킨스대학과 더불어 미국에서 학점 받기가 힘든 대학중 하나이다. 또한 영국식 거주지 칼리지 시스템으로 영국식 교육 시스템을 미국식으로 잘 바꾸어 지도하는 대학이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예일대학 입학허가를 어렵지 않게 받을수 있다.

올해 예일대학교의 입학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학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주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정규 지원에서 합격자 수는 감소했다. 지난 해에는 조기지원자 4520 명중 649 명이, 정규지원에서는 25090 명중 1342 명이 입학허가되어 총 1991 명이 합격하였다. 올해 조기지원의 경우 지난해 비해 지원자수가 230 명이 더 늘었다. 이로인해 합격자수 역시 735 명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 되어 정규 합격자수가 줄지 않을까 예상은 했지만 합격자수를 너무 많이 감소시켰다. 올해 정규 지원자 총 26182 명 중에 1200 명이 입학허가를 받아 4.58%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예일대학교의 학교기록을 세운 입학률로 갈수록 지원자수는 늘어나고 입학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일 대학 입학 처장인 퀴란(Quinlan)에 따르면 "올해 입학 허가된 학생들은 폭넓고 다양한 재능, 배경, 경험, 그리고 열정이 있는 학생들로 학교 캠퍼스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이다." 라고 말하였다. 학교가 거주지 칼리지 시스템으로 각각의 칼리지별로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 칼리지에 맞는 학생들을 선별한다. 물론 학교성적, 리더쉽, 공동체 생활 경험, 다양한 교외활동, 그리고 학생들의 배경을 고려하여 매년 신입생들의 구성을 조합한다. 영국식 교육 방식이 조금은 남아있어서인지 학교성적이 매우 우수해야 하고 학생의 성향이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원자들을 하바드에 비해 더 선호하는 대학이다.

예일 역시 하바드처럼 저소득층 학생들중 우수한 학점을 가진 학생들과 가족중 대학 진학이 1 세대인 지원자에게 많은 입학 혜택을 부여하였다. 물론 흑인, 백인, 아시안등 인종에 대한 배려도 하여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신입생들을 확보하였다. 조기지원과 정규 지원에서 학생들이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합격률이 높아지는것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점은 지난 10 년동안의 데이터를 통해서 알수 있다.

Yale University

Year	Overall			Early Action			Regular Decision		
	Admit	Applied	Rate	Admit	Applied	Rate	Admit	Applied	Rate
2005	1880	19451	9.67	704	3933	17.90	1176	15518	7.58
2006	1878	21101	8.90	724	4084	17.73	1154	17017	6.78
2007	1860	19323	9.63	709	3541	20.02	1151	15782	7.29
2008	1892	22813	8.29	885	4888	18.11	1007	17925	5.62
2009	1951	26000	7.50	742	5556	13.35	1209	20444	5.91
2010	1940	25869	7.50	730	5235	13.94	1210	20634	5.86
2011	2006	27282	7.35	761	5257	14.48	1245	22025	5.65
2012	1975	28974	6.82	675	4304	15.68	1300	24670	5.27
2013	1991	29610	6.72	649	4520	14.36	1342	25090	5.35
2014	1935	30932	6.26	735	4750	15.47	1200	26182	4.58